

전일동향

전일대비 5.80원 하락한 1,363.80원에 마감

16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5.80원 하락한 1,363.80원에 마감했다.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1.60원 하락한 1,368.00원에 개장했다.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환율은 하락세를 보였다. 국내증시 강세 및 네고 물량 유입 등에 환율은 낙폭을 확대하며, 1,363.80원에 증가(15:30 기준)를 기록했다. 주간장중 변동 폭은 9.00원이었다. 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945.92원이다.

전일환율변동	구분	시가	고가	저가	증가(15:30)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	달러	1368.00	1368.60	1353.00	1363.80	1363.60
	엔화	950.51	951.60	937.81	941.96	-
	유로화	1580.92	1582.70	1565.57	1576.40	-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		1M	3M	6M	12M
	보장환율(수출)	-1.25	-7.07	-15.77	-30.56
	결제환율(수입)	-1	-6.2	-13.91	-27.11

*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,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
*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,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(<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>) 확인

금일 전망

중동지역 갈등 종식 기대에...1,350원대 중후반 중심 등락 전망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2.80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(1,363.80) 대비 5.00원 하락한 1,356.0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 금일 환율은 중동지역 갈등 종식 기대에 따른 위험선호심리에 하락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. 이란이 제3국을 통해 미국 및 이스라엘과 핵 협상 및 휴전을 원한다는 보도가 나왔다. 이란의 휴전 제안으로 국제유가는 배럴당 70달러를 하회했다. 다만, 베냐민 나타냐 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의 휴전 제안을 가짜 협상으로 일축하며, 추가 공습 의지를 밝혔다. 국제유가는 하락분을 반납하며 다시 배럴당 70달러를 상회했다. 달러화는 이란-이스라엘 상황 등에 보험세로 마감했다. 뉴욕증시는 중동 갈등 종식 기대를 반영하며 다우지수 +0.75%, S&P +0.94%, 나스닥 +1.52%로 마감했다. 금일 환율은 달러 보험 흐름에도 뉴욕증시 상승 마감 등의 영향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. 아울러 국내증시 강세에 따른 외인 매수세 등은 환율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. 다만, 수입결제 등 실수요 저가매수에 하단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.

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	1352.40 ~ 1362.40 원
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체크포인트	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-3224.01 억원
	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5.00원 ↓
	■ 美 다우지수 : 42515.09, +317.3p(+0.75%)
	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111.32 억달러
	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+16855 억원

※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